

집단구성원의 태도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내집단규범의 영향: 집단극화의 동기적 기제의 탐색¹⁾

성 한 기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집단극화에 관한 설명 중 집단구성원의 태도 결정 과정에 관한 두 이론의 상이한 주장을 2개의 실험을 통해서 검증하였다. 사회비교이론은 사회적 가치와 내집단규범의 질층에 의해서, 자기범주화이론은 내집단규범에의 동조에 의해서 태도가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이를 개인의 태도, 이상(理想) 및 내집단규범 추정치를 비교함으로써 검증할 수 있다고 보고, 사회적 가치의 명료성 수준에 따라서 세 측정치간의 차이가 달라서 각 이론이 잘 적용되는 조건이 다를 것으로 추론하였다. 즉, 가치 명료 조건에서는 사회비교이론의 주장대로 개인 태도는 내집단보다 더 바람직하고 이상보다는 덜 바람직할 것이며, 가치 불명료 조건에서는 자기범주화이론의 주장대로 세 측정치간에 차이가 없을 것으로 가설화하였다. 모험-보수 차원의 태도를 측정한 실험 1에서는 가치 명료 조건에서만 가설이 지지되었으며, 일반적인 사회적 요양도를 조작한 실험 2에서는 두 조건에서 모두 가설이 지지되었다. 그리고 실험 2의 두 조건에서 유의한 극화 효과를 얻음으로써 태도의 결정 과정은 달라도 결과는 동일함을 확인하였다.

집단 상호작용 후 개인들의 반응 평균이 상호작용 이전의 반응 평균과 동일한 방향으로 더 극단화되는 현상을 집단극화(group polarization)라고 한다. 이 현상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설득주장이론(persuasive arguments theory, Vinokur & Burnstein, 1974), 사회비교이론(social comparison theory, Myers, 1978) 및 자기범주화이론(self-categorization theory, Turner, Hogg, Oakes, Reicher & Wetherell, 1987)의 세 이론을 들 수 있는데(세 이론에 관한 구체적 설명은 성한기(1991)를 참조), 모든 이론이 각각 상당량의 지지 증거들을 축적하여 나름대로의 설명력을 확보하

고 있다. 그러나 가장 최근에 제시된 자기범주화이론은 보다 더 정교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으며(한덕웅, 1996) 각 이론간의 설명이 상충되는 부분들도 더러 미해결된 채로 남아있는 실정이다(성한기, 1994). 본 연구는 집단극화를 유발하는 동기적 기제에 관한 사회비교이론과 자기범주화이론의 차별적 주장을 비교 검증하는 것을 중심 문제로 삼고, 이를 2개의 실험을 통해서 규명하고자 하였다.

집단극화가 유발되는 과정에 관한 두 이론의 설명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비교이론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과 능력을 평가하려는 욕구를 가지며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유사한 타인과 비교하여 평가하게

1) 본 연구는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의 연구비 지원을 받았음.

된다고 가정한다. 또한 사람들은 자신의 입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제시하려는 욕구도 있어서 사회비교를 통해 자신이 타인들보다 덜 바람직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자신의 입장을 수정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사회비교 후 자신이 타인들보다 더 바람직한 위치에 있음을 알게 된 사람은 자신의 입장을 변화시킬 필요가 없다. 따라서 집단상호작용 후 구성원 전체의 평균적 입장은 상호작용 이전의 입장보다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방향으로 극화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타인에게 바람직한 인물로 비치기 위해서 자신의 입장을 수정할 때 자기고양 욕구와 동조 또는 경양욕구간에 절충한 위치를 견지하려고 한다(Isenberg, 1986; Myers, Wojcicki, & Aardema, 1977). 다시 말해서 자신의 이상(理想)을 추구하려는 욕망과 집단으로부터 크게 이탈하지 않으려는 욕망의 교차점이 개인의 최종 선택지점이 된다. 결과적으로 각자는 남들보다 약간 더 바람직한 입장을 택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향이 모든 구성원의 반응에 반영되기 때문에 집단극화가 발생한다. 결국 이 이론은 집단극화에서 사회적 가치의 영향력을 강조한 셈이며, Jellison과 Arkin(1977)은 유능함이나 바람직함과 무관한 상황이나 과제에서는 집단극화를 발견할 수 없다고 단언하기도 하였다.

한편 자기범주화이론은 집단극화를 극대화되어 지각된 내집단규범에의 동조 현상으로 해석하고, 개인이 한 집단에 동일시하여 사회적 정체(social identity)를 갖는 것을 극화의 전제 조건으로 삼는다. 이 이론에 따르면 개인이 어떤 집단에 동일시하게 되면 집단 내의 의견들이 일치하고 또 정확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된다. 이 기대를 바탕으로 집단구성원들간에 묵시적으로 합의가 도출된 결과가 내집단규범으로서 이는 구성원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개인의 의견이 지각된 내집단규범과 일치하지 않으면 주관적 불확실성이라는 불편감이 생기고, 내집단규범에 동조함으로써 이 불편감은 해소된다(Hogg & Abrams, 1988). 내집단규범은 내집단내에서의 차이를 극소화하고 외집단과의 차이를 극대화하는 지점으로 정의되

는데, 내집단평균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어서 내집단평균이 척도의 중간점, 즉 완전 중립이 아닐 경우에는 내집단규범은 내집단평균과 동일한 방향으로 더 극단적인 것으로 지각된다. 따라서 모든 구성원이 평균보다 더 극단화된 내집단규범에 동조한 결과는 곧 집단극화로 나타나게 된다(Wetherell, 1987). 한편 사회비교이론에서는 비록 명시적으로 주목하지 않았으나 집단평균을 집단의 규범적 입장으로 가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자기범주화이론은 사회적 가치보다는 내집단규범이 집단극화의 직접적인 결정요인이라고 본다. 다만 사회적 가치가 개인의 최초 태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Turner, Wetherell & Hogg, 1989)고 봄으로써 사회적 가치의 간접적이며 최소한의 영향력은 인정하고 있다.

두 이론의 차이점을 종합해보면, 사회비교이론은 사회적 가치의 방향으로 극화된다고 주장하고 타인의 입장이 곧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타인의 입장과 사회적 가치가 항상 동일한 방향에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반면에 자기범주화이론은 타인의 범위를 내집단으로 국한하고 내집단규범측으로의 극화를 예언한다. 그리고 내집단규범은 사회적 가치와 반드시 동일한 방향이 아닐 수도 있으며(예를 들어 어떤 조직의 전체적 성향은 보수적이라 하더라도 급진적 성향의 소집단이 있을 수 있다), 사회적 가치와 상관없이 전적으로 내집단규범의 영향력을 강조한다. 자기범주화이론의 주장대로 내집단의 가치가 사회적 가치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내집단규범과 사회적 가치는 구별되어야 하겠다.

성한기(1994, 실험2)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가치와 내집단규범의 방향이 상반된 조건에서 어느 방향으로의 극화도 관찰되지 않았으며, 어느 한가지 영향만 있을 때에 비해서 동일한 방향의 사회적 가치와 내집단규범이 모두 제시될 때 극화량이 더 커서 두가지 영향의 가산성이 확인되었다. 이 결과는 사회적 가치와 내집단규범이 모두 집단극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함과 동시에 어느 이론도 완전한 설명이 되지 못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

따라서 각 이론이 상대적으로 더 큰 설명력을 지니

는 조건들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즉, 사회적 가치와 내집단규범이 각각 어떤 상황에서 극화 효과에 상대적으로 더 크게 작용하는지를 해명하는 것이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근본적 문제이다. 두 이론의 설명에서 집단극화라는 최종적 결과에 대한 예언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극화 현상 자체를 관찰하기보다는 극화되기전의 개인 태도의 결정에 관련된 심리적 과정을 다룰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해서 두 이론으로부터 상이한 예언을 도출해 낼 수 있는데, 우선 각 이론의 예언을 살펴본 다음에 두 예언이 각각 상대적으로 더 잘 맞는 조건들을 탐색하고자 한다.

먼저 사회비교이론의 관점에서 본다면 앞에서 논의했듯이 개인의 반응은 동료들의 반응 평균보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약간 더 나아간 위치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어떤 주제에 대해서 동료들의 전반적 태도보다는 자신의 태도가, 그리고 자신의 태도보다는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이 사회적으로 더 가치있는 방향에 있다고 판단할 것으로 추론된다. 이러한 추론을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Levinger와 Schneider (1969)는 자신의 욕망과 현실이 조화를 이루는 수준에서 선택이 행해지며, 이때 타인이 현실판단의 준거가 된다고 주장하고, 가상적인 딜레마 상황에서 개인의 모험-보수적 판단을 묻는 12문항의 선택딜레마 질문지(choice dilemma questionnaire: CDQ)에 대한 피험자 자신의 입장과 자신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입장 그리고 동료들의 전반적 입장에 대한 추정치 등 세가지 반응을 비교하였다. 결과는 예상대로 자신의 입장은 이상적 입장보다는 더 보수적이었고, 동료들의 평균 추정치보다는 더 모험적이었다. 그들은 이 결과를 미국사회에서는 모험이 가치로 숭상되기 때문에 사회비교 과정을 통해서 모험적인 방향으로 의견이 극화되는 이른바 모험이행(risky shift)이 일어난다는 가설을 지지하는 증거로 해석했다. Pruitt와 Cosentino (1975)도 이와 동일한 결과를 보고했다.

한편 자기범주화이론의 입장에서는 자신, 이상 및 동료의 태도간에 차이가 없을 것으로 추론된다. 이 이론에 따르면 한 개인이 내집단에 동일시하여 사회

적 정체감을 가진다는 것은 자신을 어떤 집단의 일원으로 지각하는 탈개성화(depersionalization)를 의미한다. 탈개성화된 개인은 자신을 내집단의 전형적인 인물로 지각하려고 하며 자신과 내집단구성원들 간의 차이가 적다고 지각하려는 경향을 보인다(Turner & Oakes, 1989). 따라서 집단내에서는 개인적 정체감은 상실되어 집단동일시 이전의 개인적 이상과는 관계없이 집단의 전형적 구성원이 되는 것이 이상으로 추구되어 지각된 내집단규범에 동조하게 된다. 결국 동료들의 전반적 입장, 즉 내집단규범이 내집단구성원들의 이상입과 동시에 자신이 선택하는 입장이 되므로 자신의 태도, 자신의 이상 및 동료들의 전반적 태도 추정치는 서로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와같이 집단상호작용 이전의 개인의 태도, 개인의 이상 그리고 내집단규범 추정치를 각각 측정하여 비교함으로써 개인 태도의 결정 과정에 관한 두 이론의 상충되는 주장을 규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어느 한가지 주장이 모든 조건에서 배타적으로 설명력을 지닌다고 보다는 각 주장이 상대적으로 더 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을 것인데, 이와 관련된다고 보이는 중요한 변인이 사회적 가치의 명료성이다.

사회적 가치의 명료성에 따른 집단상호작용 이전의 태도 결정 과정의 차이를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적 가치의 개념을 분명히 정의해 둘 필요가 있다. 사회비교이론의 틀내에서 사회적 가치의 개념에 관하여 세가지의 상이한 주장이 대두되어 있다. Brown(1965)은 사회 전반의 문화적 가치가 개인의 태도 형성에 결정적 요인이 된다고 보고, 미국과 같은 모험적 문화권에서는 모험이행이 나타나며 보수적 문화권에서는 보수이행이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Stoner (1968)는 미국인들에게도 의사결정 주제나 상황에 따

2) 집단상호작용 이후에 개인 태도가 극화되는 이유는 실제의 내집단규범이 상호작용 이전에 추정된 바와 달라서 이에 따라 개인의 태도를 조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호작용 이후의 최종 태도의 결정 과정은 참조준거가 내집단규범 추정치에서 실제 규범으로 달라질 뿐 상호작용 이전의 태도 결정 과정과 동일하게 추론될 수 있다.

라서 보수이행이 나타남을 확인하고 문화적 가치보다는 문항특유 가치(item-specific value)의 영향력을 강조하였다. 한편 Fraser(1971; Fraser & Foster, 1984)는 문화적 가치와 문항특유 가치가 가산적으로 개인의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아직 이 세가지 주장의 상대적 타당성을 검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고, 대체로 문항특유 가치를 사회적 가치로 간주한 연구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성한기(1994, 실험2)도 문항특유 가치를 사회적 가치로 보고 문항특유 가치와 내집단규범의 방향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유의한 극화 효과를 얻었다. 그러나 문화적 가치의 영향력을 시사하는 증거들도 상당히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이나 서유럽 문화권에서 보수이행보다는 모험이행이 압도적으로 더 많이 관찰된 점이나 보수이행이 일어나는 선택딜레마를 제작하기 어렵다는 점(Lamm & Myers, 1978) 그리고 한국에서는 오히려 모험이행보다는 보수이행이 나타난다는 점(성한기, 1987; 한덕웅과 성한기, 1985)과 모험이행이 일어나는 딜레마를 제작하기 어려운 점(성한기(1994)가 제작한 21문항의 딜레마 중 모험적 반응을 얻은 딜레마는 4개에 불과했다) 등은 문화적 가치와 문항특유 가치의 가산적 영향력을 보여주는 근거로 해석할 수 있다.

문화적 가치와 문항특유 가치의 가산적 효과를 가정한다면 두 가치의 방향일치 여부에 따라서 사회적 가치의 명료성이 달라진다. 즉, 두가지 가치의 방향이 일치하면 가치가 명료한 상황이며, 일치하지 않으면 가치가 불명료한 상황이다. 두 이론의 관점에서 유추해보면 사회비교이론에서는 사회적 가치의 방향으로 극화된다고 주장하므로 가치가 불분명하면 집단극화가 일어나지 않으며, 반면에 자기범주화이론에서는 극화는 전적으로 내집단규범의 영향을 받는다고 보기 때문에 가치 명료성에 관계없이 극화될 수 있다. 그런데 민방위훈련과 같이 합의된 사회적 가치가 뚜렷하지 않은 주제에서 내집단규범 방향으로의 극화 효과가 반복 검증된 결과(성한기, 1994) 등은 자기범주화이론의 타당성을 강력하게 시사하며, 따라서 가치 명료성에 관계없이 집단상호작용 후에 집단극화가 일어난다. 하지만 집단극화 이전의 개인 태도의 결정

과정은 가치 명료성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사회적 가치의 명료성에 따라서 개인의 태도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내집단규범의 상대적 영향력이 달라지고 어느 요인이 크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동일하지만 과정은 상이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인의 문화적 가치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추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자가 여대생 206명에게 5개국 국민의 보수성을 평정하게 한 결과, 한국인(7점 척도상의 $M=5.48$, $SD=.78$)을 일본인($M=3.85$, $SD=1.46$), 프랑스인($M=2.51$, $SD=1.20$) 및 미국인($M=1.71$, $SD=.79$)보다 더 보수적으로 지각했으며, 통계적으로도 모두 유의한 차이로 나타났다(t 검증 결과 모든 비교에서 $p<.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다만 한국인을 중국인($M=5.72$, $SD=1.16$)보다는 덜 보수적으로 지각하였다. 또한 Hong(1978)은 서양인에게서 모험이행이 일어나는 문항에서 중국인에게서는 보수이행이 일어남을 발견하고, 그 결과를 중국인이 서양인에 비해서 더 보수적이며 보수적 문화적 가치를 지닌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한국의 경우 미국과는 달리 '보수'가 문화적 가치라고 판단할 수 있겠다.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모험적 반응을 보이는, 즉 문항특유 가치가 모험적인 주제나 문항(이하 모험문항으로 약칭함)의 경우는 문화적 가치와 문항특유 가치가 상반되므로 가치가 불명료한 조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애매한 상황에서 개인의 반응은 전적으로 내집단규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자신의 태도, 이상 및 내집단규범 추경치는 자기범주화이론의 예언대로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주제나 문항(이하 보수문항으로 약칭함)의 경우는 문화적 가치와 문항특유 가치가 일치하기 때문에 가치의 방향이 명료한 조건이 된다. 이 조건은 Asch(1956)의 동조 상황처럼 객관적 현실이 비교적 분명한 상황이어서 사회적 정체감을 가진 개인이라 하더라도 사회적 가치의 영향력을 벗어나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즉, 이 조건에서는 가치가 불명료한

조건에 비해서 내집단의 영향이 약화되어 개인의 태도는 사회적 가치와 내집단규범을 절충하는 위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회적 가치가 명료한 조건에서는 사회비교이론의 예언대로 개인의 태도는 개인의 이상보다 덜 보수적이며, 내집단규범 추정치보다는 더 보수적일 것이다.

Levinger와 Schneider(1969)의 자료를 보수문항과 모험문항으로 구분하여 재검토한 결과는 이러한 추론을 뒷받침해준다. 그들이 사용한 12문항의 선택델레마 중에서 7문항은 모험적, 5문항은 보수적 응답이 나왔다. 7개의 각 모험문항에서 피험자 자신의 태도는 동료 태도 추정치보다 유의하게 더 모험적이었고, 자신의 이상보다는 더 보수적이었다. 그러나 보수문항들에서는 자신-동료 및 자신-이상의 두가지 비교 모두 또는 하나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미국의 문화적 가치가 '모험'에 있다고 볼 때 모험문항을 접한 상황은 가치 명료 상황이고, 보수문항을 접한 상황은 가치 불명료 상황이 되므로 이 결과는 위의 추론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나은영(1995)의 결과에서도 본 연구자의 추론과 일치하는 증거를 찾아볼 수 있다. 그녀는 대학 및 대학생에 관한 8개 문항에 대하여 대학생 피험자들로 부터 자신의 의견과 지각된 내집단규범을 측정한 결과, 피험자들의 실제 의견이 지각된 내집단규범보다 더 극단적이었다. 구체적으로, 피험자 다수가 찬성한 문항에서는 실제 의견의 찬성률이 지각된 내집단규범의 찬성률보다 더 높았으며, 다수가 반대한 문항에서는 실제 의견의 반대율이 지각된 규범의 반대율보다 더 높은 양극화현상을 보였다. 다수의 의견이 찬-반 연속선상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것은 곧 사회적 가치가 그 방향에 있음을 암시하므로 이 결과는 가치 명료 상황에서 실제 선택이 지각된 규범보다 더 가치있는 방향으로 간다는 점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³⁾ 또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보면 피험자

개인 의견이 중립에 가까운 문항(실험1의 6, 7번과 실험2의 2, 6, 7번)은 실제 의견과 지각된 규범이 차이가 없거나 크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문항들의 경우에는 사회적 가치가 불명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제 의견과 지각된 규범간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더 적게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⁴⁾

이상의 추론을 바탕으로 2개의 실험을 계획하였다. 실험 1에서는 모험-보수 차원에서 가치 명료성에 따른 사회적 가치와 내집단규범의 상대적 영향력을 검토하였고, 실험 2에서는 모험-보수 차원보다 더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를 반복 검증하며 나아가서 개인 태도의 결정 과정이 상이하더라도 집단상호작용 후의 결과(즉, 집단극화)는 동일한지도 확인하고자 하였다.

실 험 1

실험1에서 다룰 가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가치가 명료할 때의 태도가 명료하지 못할 때의 태도보다 더 보수적일 것이다.
2. 가치 명료성에 따라서 세가지 관점별 태도가 다를 것이다. 즉, (1)가치가 명료한 조건에서는 자신의 태도는 내집단규범 추정치보다 더 보수적이고, 자신의 이상보다는 더 모험적일 것이다. (2)가치가 불명료한 조건에서는 세가지 관점에 따른 태도 차이가 없을 것이다.

방 법

피험자 '심리학개론'을 수강하는 대구효성가톨릭대생 중 1학년 여대생 50명으로서 가치 명료 및 가치 불명료의 2개 조건에 각 25명씩 무선할당되었다.

실험절차 피험자들에게 대학생들의 사회적 상황에 대한 태도 및 판단에 관한 연구의 일부분이라고 알려 주면서 두가지 상황에 관한 개인적 의견을 알아보고,

단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없이 단순히 내집단규범을 추정하게 한 결과만 가지고 직접 검증하기는 불충분하다고 여겨진다.

- 4) 실제 의견의 편차를 알 수 없어서 불확실하지만 찬성, 반대가 아닌 중립이 가치로 작용하는 상황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나은영(1995)은 이 결과를 내집단규범은 실제의 규범보다 더 극단화되어 지각된다는 자기범주화이론의 주장을 부정하는 증거라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자기범주화이론에서는 집단상호작용 후에 내집단구성원들이 내집단규범을 극화하여 지각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내집

추후에 4명의 다른 1학년 학생들과 집단(즉, 내집단)을 이루어 5명의 3학년 집단(즉, 외집단)과 토의를 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집단토의는 실제로 행해지지 않았으나 외집단과의 토의를 예상하게 한 이유는 보다 강하게 내집단에 동일시하여 분명한 사회적 정체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런 다음 두가지 선택 딜레마에 대하여 자신, 내집단 및 이상의 관점 순으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실험방안 2(가치 명료성: 명료 대 불명료) × 3(관점: 자신 대 내집단 대 이상)의 요인실험으로서 관점 변인은 피험자내 변인이었다.

문항의 선정 성한기(1994)가 제작한 21문항의 선택딜레마 중에서 문항특유 가치가 보수로 확인된 보수문항 2개와 문항특유 가치가 모험으로 확인된 모험문항 2개를 발췌하여 모두 4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 제작 당시에 29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두개의 보수문항의 반응 평균은 11점 척도상에서 7.76이었으며, 두개의 모험문항의 평균은 4.61로서 두 유형의 문항 평균이 중간점으로부터 떨어진 정도가 비슷하였다. 보수 및 모험 문항을 하나씩 제시하면 다음과 같으며, 그밖에도 보수문항으로서 이성교제에 관한 딜레마와 모험문항으로서 학생회장이 처한 딜레마를 사용하였다.

(보수딜레마)일찍 남편을 잃은 김씨는 대규모 건설 회사의 사장으로 은퇴를 결심하고 후임자를 고려하고 있다. 그녀는 젊었을 때 온갖 고생을 겪고 회사를 세워 한국 굴지의 회사로 키웠다. 김씨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회사 내부에서는 당연히 아들에게 물려주리라 생각하고 있지만 그녀가 보기에는 아들이 큰 회사를 경영하기에는 역량이 다소 부족한 것 같다. 게다가 요즘 건설경기는 불황인데 아들이 일을 그만칠 경우 그녀가 평생 쌓은 탐이 한번에 무너질지도 모른다. 당신이 김씨라면 아들이 회사를 잘 이끌 확률이 얼마나 되면 아들에게 물려주겠습니까? (1)1% (2)10% (3)20% ~ (9)80% (10)90% (11)99%

(모험딜레마)김씨는 30대의 여류소설가로서 이름은 어느 정도 알려져 있으나 대표작으로 내세울만한 작품은 없으며 유능한 작가로 인정을 받지 못한 형편이다. 독신인 그녀는 잡지에 소설을 연재하면서 생활을 꾸려나가고 있는데 어느 날 대작이 될 만한 소재를 생각해냈다. 그러나 그녀의 구상대로라면 소설

을 완성하는데 꼬박 4~5년이 걸리고, 이 작품이 인정받는다면 명성과 경제적 수입이 보장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오랜 시간을 허송한 셈이 된다. 당신이 김씨라면 새로 구상한 소설이 인정받을 확률이 얼마나 되면 그 소설을 쓰겠습니까?

독립변인 조작 가치 명료성 조작: 가치 명료 조건에서는 문화적 가치와 문항특유 가치의 방향이 일치하도록 조작하였고, 가치 불명료 조건에서는 두 가치의 방향이 상반되도록 조작하였다. 즉, 문화적 가치의 방향이 '보수'라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가치 명료 조건의 피험자들에게는 보수문항을, 불명료 조건의 피험자들에게는 모험문항을 제시하였다.

관점 조작: 각 문항에 대한 피험자 자신의 개인적 태도를 밝히게 한 다음, "당신과 같은 학년인 본교 1학년생들의 일반적 생각은 어떨 것 같습니까?"라는 물음에 응답하게 하여 내집단의 규범적 입장을 추정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바람직하거나 가장 이상적인 대답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라고 질문하여 자신의 이상을 측정하였다.

종속변인 측정 각 문항에 대한 태도가 종속변인이었으며, 11점 척도를 가진 질문지를 통해 측정되었다.

결 과

독립변인 조작 확인 가치 명료성의 조작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피험자들에게 "위의 두 문항을 많은 사람들에게 물었을 때 확률을 50% 이상으로 대답할 사람들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라는 보수적 응답 비율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0~9%부터 90~100%까지의 10점 척도상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보수문항을 접한 가치 명료 조건의 피험자들의 반응 평균은 8.11(SD=1.85)이었고, 모험문항을 접한 가치 불명료 조건의 평균은 4.80(SD=2.49)이었다. 가치 불명료 조건의 반응들을 모험적 응답 비율의 값으로 변환(즉, M=6.20, SD=2.49)하여 가치 명료 조건과 차이검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_{48}=3.03, p<.01$). 이는 곧 보수문항에 대한 보수적 응답 비율 추정치와 모험문항에 대한 모험적 응답 비율 추정치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어서 모험문항에 대한 반응이

더 중립에 가까움을 의미한다. 아울러 모험문항의 경우 변산도가 커서 매우 다양한 반응이 나올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결과들은 모두 보수문항보다 모험문항을 접했을 때 사회적 가치 판단이 더 애매해진 때 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가치 명료성의 조 작은 성공적인 것으로 보인다.

태도 피험자들의 두 문항에 대한 응답의 조건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한 것이 표 1이다.

각 피험자들의 두 문항에 대한 응답을 합산하여 가치 명료성과 관점을 독립변인으로 2원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예상대로 가치 명료성의 주효과($F_{1,48} = 37.95, p < .001$)와 두 변인의 상호작용 효과($F_{2,96} = 41.06, p < .001$)가 유의하였다. 가치 명료성의 주효과로 부터 사회적 가치가 명료할 때가 불명료할 때보다 태도가 더 보수적임이 확인되었으며 따라서 가설 1이 지지되었다. 즉, 사회적 가치가 분명할 때는 사회적 가치의 방향으로 태도가 형성됨을 짐작할 수 있다.

가치 명료성(A)과 관점(B) 변인의 상호작용 효과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 1이다. 그러나 단순 주효과를 알아본 결과, 가치 명료 조건(B at A₁; $F_{2,96} = 23.78, p < .001$)뿐 아니라 가치 불명료 조건(B at A₂; $F_{2,96} = 20.03, p < .001$)에서도 관점별 태도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추세분석 결과는 가치 명료 조건에서는 1차식 추세만 유의하였으며, 가치 불명료 조건에서는 2차식 추세만 유의하였다.

차이의 출처를 규명하기 위해서 각 하위조건별 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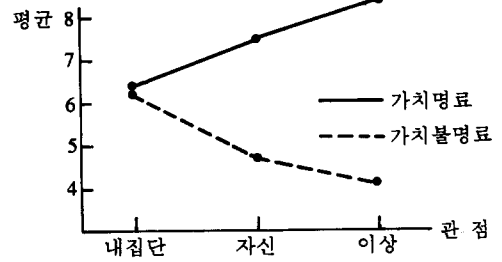


그림 1. 가치 명료성과 관점의 상호작용(실험 1)

균치를 Newman-Keuls 검정으로 사후비교하였다. 그 결과, 가치 명료 조건에서는 자신-내집단 관점간($Q = 3.33, k = 2, df = 144, p < .05$) 및 자신-이상 관점간($Q = 3.43, p < .05$)에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사회적 가치가 명료할 때 개인의 태도는 내집단규범 추정치보다 더 보수적이고, 개인의 이상보다는 덜 보수적일 것이라는 가설 2-(1)은 지지되었다. 그리고 가치 불명료 조건에서는 자신-이상 관점간에는 예상대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Q = 1.80, ns$), 자신-내집단 관점간에는 차이가 유의하여 개인 자신의 태도가 내집단규범 추정치보다 더 모험적이었다($Q = 4.67, p < .01$). 이 결과는 가설 2-(2)를 부분적으로만 지지한 셈이다.

한편, 세 관점별 태도를 각 문항별로 일원 변량분석한 결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두 문항에 대한 반응을 합산한 결과와 전반적으로 일치하였다(후 제자 선정; $F_{2,48} = 21.87, p < .001$, 이성교제; $F_{2,48} = 10.23,$

표 1. 가치 명료성과 관점에 따른 태도의 평균과 표준편차(실험 1)

가치명료성	문항	관점			
		내집단	자신	이상	전체
명료	후계자 선정	6.12(1.79)	7.44(1.56)	8.44(1.69)	7.33(1.91)
	이성교제	6.40(1.85)	7.08(2.20)	8.14(1.79)	7.21(2.00)
	계	6.26(1.05)	7.26(1.39)	8.29(1.18)	7.27(1.41)
불명료	학생회장	5.48(1.76)	3.96(2.37)	3.28(2.64)	4.24(2.44)
	소설가	6.80(2.10)	5.52(2.29)	5.12(2.60)	5.81(2.42)
	계	6.14(1.35)	4.74(1.65)	4.20(2.17)	5.03(1.92)
전체		6.20(1.20)	6.00(1.97)	6.25(2.65)	6.15(2.01)

* 11점 척도를 사용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보수적이다.

$p < .001$, 학생회장; $F_{2,48} = 13.45$, $p < .001$, 소설가; $F_{2,48} = 7.10$, $p < .01$).

논 의

가치 명료 조건에서는 내집단, 자신 및 이상의 세 관점별 태도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어서 개인의 태도는 사회적 가치와 내집단규범이 절충되는 지점에서 결정된다는 추론이 지지되었으나, 가치 불명료 조건에서는 세 관점간에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예언과 달리 내집단규범 추정치와 자신의 태도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즉, 문화적 가치와 문항특유 가치의 방향을 달리하여 사회적 가치를 불명료하게 조작하였으나 불명료한 정도가 다소 약해서 예상한 결과를 얻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가능성은 두가지 방향에서 논의해 볼 수 있겠다. 먼저, 본 실험에서 묵시적으로 문화적 가치와 문항특유 가치의 동일한 영향력을 가정했으나, 상황이나 과제에 따라서 문화적 가치와 문항특유 가치의 영향력 또는 특출성(salience)이 다를 수 있다. 만일 문항특유 가치의 영향력이나 특출성이 더 크다면 가치 불명료 조건의 결과는 모험적 문항 가치의 작용에 기인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는 문항특유 가치에 문화적 가치가 이미 혼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어떤 상황에 대한 개인의 태도는 당시의 사회문화적 가치를 어느 정도 반영한다고 본다면 모험문항의 경우에 보수적인 문화적 가치가 고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험적 응답 경향을 띄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모험문항이 제시된 가치 불명료 조건도 가치가 비교적 분명한 상황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해석이 타당하다면 모험이나 보수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 문항을 채택하여 가치 불명료 조건을 조작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가치 판단이 애매해서 중립을 택한 것이라기 보다는 중립 자체가 가치로 추구되어서 중립적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방안 역시 타당성이 불투명하다. 따라서 모험 - 보수의 차원에서 문화적 가치와 문항특유 가치를 통해 가치의 명료성을 논하기 위해

서는 이와 같은 해석들에 대한 경험적 검증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실험 2에서는 이러한 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모험 - 보수의 차원이 아닌 일반적인 사회적 요망도(social desirability) 자체를 조작하여 가치 명료성 효과를 재검증하였다.

실 험 2

실험 2는 실험 1과 전반적으로 동일한 문제를 다루고 있으나 세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먼저, 사회적 가치의 명료성을 다룸에 있어서 모험 - 보수 차원에 국한된 가치보다는 더 일반적인 사회적 가치에 초점을 두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문화적 가치와 문항가치의 일치 여부에 따른 가치 명료성의 조작 방법 대신에 사회적 요망도 수준을 달리하여 명료성을 조작하는 보다 직접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추가 질문을 통해서 가치 명료성 효과에 대한 보충 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셋째, 세가지 관점별 태도를 측정 후 내집단규범을 제시하여 개인 태도를 반복 측정함으로써 실제의 극화 효과를 검토하였다.

실험 1에서 추론한 바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요망도가 분명한 상황, 즉 가치 명료 조건에서의 관점별 태도는 사회비교이론의 주장대로 차이가 있을 것이고, 사회적 요망도가 불분명한 상황, 즉 가치 불명료 조건에서의 관점별 태도는 자기범주화이론의 주장대로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리고 가치 명료 조건에서는 사회적 가치가 개인의 선택이나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참조준거가 부족한 가치 불명료 조건에서보다 개인적 태도나 규범 추정치 등에 관한 자신의 응답에 대해서 더 큰 확신을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가치 불명료 조건의 피험자들은 응답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응답 후에 내집단의 실제 의견을 더 궁금하게 여기고 확인하고 싶어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 추론이 타당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사회적 가치가 불명료한 상황에서는 명료한 상황보다 집단구성원들이 내집단규범에 더 크게 의존하고 동조한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집단내의 개인적 태도는 사회적 가치의 명료성에 따라서 상이한 영향 과정으로 결정되지만 집단상호작용 후의 태도는 가치 명료성에 관계없이 최초의 태도보다 더 극단화되어 집단극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즉, 최초 태도의 결정 과정과 마찬가지로 집단상호작용 후의 태도 역시 가치 명료 조건에서는 사회적 가치 추구와 내집단규범에의 동조 경향간의 절충에 의해서, 그리고 가치 불명료 조건에서는 내집단규범에 동조함으로써 결정되는데, 처음에 추측했던 내집단규범보다 상호작용시 확인하게 된 실제의 내집단규범이 더 극단적이면 이에 따라 집단구성원들도 자신의 태도를 수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집단극화가 일어나게 된다. 그런데 실제의 집단토의나 상호작용이 없이 토의를 녹음한 내용을 듣거나 타인 반응에 관한 서면 정보를 접하더라도 집단극화가 일어나며 (Mackie, 1986 등), 극화량도 실제의 상호작용 후의 극화량과 차이가 없는 것(Goethals & Zanna, 1979 등)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실험에서도 내집단의 반응 정보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극화를 관찰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근거로 하여 실험 2에서 다룰 가설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 가치 명료성에 따라서 세가지 관점별 태도가 다를 것이다. 즉, (1)가치가 명료한 조건에서는 자신의 태도는 내집단규범 추종치보다 더 바람직하고, 자신의 이상보다는 덜 바람직할 것이다. (2)가치가 불명료한 조건에서는 세가지 관점에 따른 태도 차이가 없을 것이다.
4. 가치가 명료할 때에 비해서 불명료할 때 (1)응답하기가 더 힘들었다고 지각할 것이며, (2)실제의 내집단규범을 확인하려는 의도가 더 클 것이다.
5. (1)가치 명료 조건과 (2)가치 불명료 조건에서 공히 내집단규범을 알고난 후의 태도는 알기 전의 태도와 동일한 방향으로 더 극단적일 것이다.

방 법

피험자 '심리학개론'(실험 1의 피험자 집단과는 다른 반)을 수강하는 50명의 대구효성가톨릭대 1학년

여학생들로서 2개의 실험 조건별로 25명씩 무선할당되었다.

실험절차 실험은 전후반으로 나누어 실시되었다. 전반부 실험은 실험 1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되었으나, 선택딜레마 대신에 두가지 태도문항에 대한 관점별 태도와 기타 종속변인(응답곤란도 지각 및 내집단규범 확인의도)을 측정하는 질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전반부 실험 후 3~4일 뒤에 시간관계로 집단토의를 생각하고 간단한 질문지 조사로 대신한다고 하면서 피험자들에게 동일한 태도문항과 내집단의 전반부 반응자료가 함께 제시된 질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여 반응의 극화 여부를 측정하였다.

실험방안 2(가치 명료성) × 3(관점)의 요인실험으로서 관점변인은 피험자내 변인이었다.

독립변인 조작 가치 명료성 조작: 가치 명료 조건의 피험자들에게는 사회적으로 요망되는 방향, 즉 사회적 가치의 방향이 분명한 2가지 태도문항을 제시하고 응답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다소 번거롭더라도 쓰레기 분리수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및 "품질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국산품을 이용해야 한다"라는 문항이었으며 찬성하는 쪽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응답이다. 그리고 가치 불명료 조건의 피험자들에게는 이상욱(1985)이 제작한 사회적 요망도가 통제된 태도문항 중 2문항을 선정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즉, "산보다는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다" 및 "민주주의의 덕목인 자유와 평등 중에서 자유가 더 강조되어야 한다"라는 문항으로서 찬성하던 반대하던 바람직한 정도는 차이가 없다. 4문항 모두 절대 반대~절대 찬성의 7점 척도상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관점 조작: 실험 1과 동일한 질문과 순서로 조작하였다.

그리고 후반부 실험에서 두 조건의 피험자들에게 본 연구에 참가한 1학년생들의 개인적 태도의 평균이라고 하면서 내집단규범을 제시하였는데, 태도 평균은 가치 명료 조건의 두 문항에 대한 실제 반응 평균인 6.24(분리수거 및 산과 바다 문항)와 5.08(국산애용 및 자유평등 문항)로 조작하였다. 가치 불명료 조건

의 두 문항에 대한 실제의 태도 평균은 거의 중립에 가깝게 나타났는데, 집단상호작용 전의 태도 평균이 중립으로부터 벗어나야 극화가능하기 때문에 집단극화 여부를 관찰하기 위해서 가치 불명료 조건에서도 명료 조건과 동일한 자료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가치 불명료 조건에서의 극화 분석은 조작된 내집단규범과 규범을 접한 후의 태도 평균을 비교하였다.

종속변인 측정 두가지 문항에 대한 찬·반 태도가 주 종속변인이었으며, 그밖에 응답곤란도 지각 및 내 집단규범 확인의도를 7점 척도의 질문지를 통해서 측정하였다.

결과 및 논의

태도 두 문항에 대한 피험자들의 응답 평균과 표준편차를 조건별로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두가지 태도문항에 대한 피험자들의 응답을 합산하여 2×3의 2원 변량분석을 한 결과, 가치 명료성(A) 주효과($F_{1,48}=82.63, p<.001$), 관점(B) 주효과($F_{2,96}=11.42, p<.001$) 및 가치 명료성과 관점간의 상호작용 효과($F_{2,96}=27.29, p<.001$) 등 모든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두 변인의 상호작용 효과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단순 주효과를 확인한 결과는 예언대로 가치 명료 조건에서는 세가지 관점에 따라 태도의 차이가 유의하였으나(B at A₁; $F_{2,96} = 35.60, p<.001$), 가치 불명료 조건에서는 관점별 태도간에 차이가 없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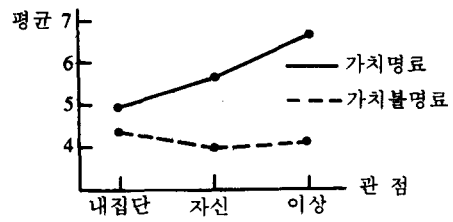


그림 2. 가치 명료성과 관점의 상호작용(실험 2)

다(B at A₂; $F_{2,96}=2.92, ns$). 따라서 가치 명료성에 따라 관점별 태도가 다를 것이라는 가설 3은 지지되었다.

나아가서 각 하위조건별 평균치를 Newman-Keuls 검정으로 비교한 결과, 가치 명료 조건에서는 자신 - 내집단 관점간($Q=4.00, k=2, df=144, p<.01$) 및 자신 - 이상 관점간 ($Q=5.25, p<.01$)의 태도가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자신의 태도는 내집단규범 추정치보다 더 바람직한 위치에 있으며, 자신의 이상 보다는 덜 바람직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가설 3-(1)을 지지하였다. 반면에 가치 불명료 조건에서는 자신 - 내집단 관점간($Q=2.88, ns$) 및 자신 - 이상 관점간($Q=.75, ns$)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이 결과는 가설 3-(2)를 지지한다. 문화적 가치와 문항특유 가치의 모험 - 보수 차원상에서의 방향 일치 여부를 통해서 가치 명료성을 조작한 실험 1과는 달리 사회적 요망도를 직접 조작한 결과, 각 이론으로부터 추론한 바와 일치하는 결과를 얻었다. 요컨대

표 2. 가치 명료성과 관점에 따른 태도의 평균과 표준편차(실험 2)

가치명료성	문항	관점			
		내집단	자신	이상	전체
명료	분리수거	5.72(.68)	6.24(.52)	6.88(.33)	6.28(.71)
	국산애용	4.32(1.73)	5.08(1.35)	6.12(1.13)	5.17(1.59)
	계	5.02(.97)	5.66(.72)	6.50(.63)	5.73(.99)
불명료	산과바다	4.72(1.02)	4.16(1.18)	4.28(.74)	4.39(1.01)
	자유평등	4.16(1.28)	3.80(1.26)	3.92(1.22)	3.96(1.25)
	계	4.44(.85)	3.98(.80)	4.10(.72)	4.17(.80)
전체		4.73(.95)	4.82(1.13)	5.30(1.39)	4.95(1.19)

* 7점 척도를 사용했으며, 가치 명료 조건의 경우에 점수가 높을수록 바람직하다.

표 3. 내집단규범을 확인하기 전후의 개인 태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가치명료성	문항	확인전	확인후	차이	t ⁵⁾
명료	분리수거	6.24(.52)	6.51(.45)	.27	2.78**
	국산애용	5.08(1.35)	5.83(.94)	.75	3.23**
	계	5.66(.72)	6.17(.67)	.51	3.64**
불명료	산과바다	6.24(.52)	6.08(1.02)	-.16	-.99
	자유평등	5.08(1.35)	5.98(.91)	.90	3.91**
	계	5.66(.72)	6.03(.93)	.37	2.23*

* p<.05, ** p<.01

가치 명료 조건에서는 사회적 가치 추구를 통한 자기 제시욕구와 내집단규범에의 동조욕구간의 조화에 의해서, 그리고 가치 불명료 조건에서는 내집단규범에 의 동조 경향에 의해서 집단구성원의 태도가 정해지는 것으로 밝혀진 셈이다.

한편, 4개의 각 문항별로 관점의 주요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가치 명료 문항인 ‘분리수거’ ($F_{2,48}=38.76, p<.001$)와 ‘국산 애용’ 문항($F_{2,48}=14.88, p<.001$)에서는 두 문항을 합산하여 분석한 결과와 일관되게 관점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가치 불명료 문항에서는 ‘자유와 평등’ 문항($F_{2,48}=1.33, ns.$)에서는 예상대로 세 관점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산과 바다’ 문항($F_{2,48}=3.68, p<.05$)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렇지만 ‘산과 바다’ 문항에서 두 관점별 사후비교 결과는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응답곤란도 지각 및 내집단규범 확인의도 먼저 지각된 응답곤란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피험자들에게 “각 질문에 대답하기가 어느 정도로 힘들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전혀 힘들지 않았다~매우 힘들었다의 7점 척도상에 평정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가

치 불명료 조건($M=4.50, SD=1.31$)의 피험자들이 가치 명료 조건($M=3.32, SD=1.20$)의 피험자들보다 태도문항에 응답하기가 더 힘들었다고 지각하였다($t_{48}=4.72, p<.01$). 이 결과로부터 가설 4-(1)이 지지되었다.

그리고 내집단규범 확인의도는 “본교 1학년생들의 실제 의견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전혀 알고 싶지 않다~매우 알고 싶다의 7점 척도상에 평정하도록 하여 측정하였다. 예상대로 가치 불명료 조건($M=4.94, SD=1.09$)의 피험자들이 가치 명료 조건($M=4.28, SD=1.44$)의 피험자들보다 실제의 내집단규범을 확인하고자 하는 의도가 더 컸다($t_{48}=2.59, p<.01$). 따라서 가설 4-(2)도 지지되었다. 이 결과는 가치 불명료 조건에서 내집단규범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받는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자료가 된다.

극화 내집단규범을 알고난 후의 태도와 알기 전의 태도 평균을 조건별로 제시하면 표 3과 같다. 내집단규범을 접하기 전에 비해서 접한 후의 태도가 가치 명료 조건($t_{48}=3.64, p<.01$)과 불명료 조건($t_{48}=2.03, p<.05$)에서 모두 접하기 전의 태도와 동일한 방향으로 더 극단적이었다. 이는 집단극화에 관한 가설 5-(1)과 (2)를 각각 지지하는 결과이며 수많은 선행 연구결과들과도 일관된다. 따라서 집단구성원의 태도의 결정 과정은 다를 수 있어도 집단상호작용 후에 태도가 극화되는 결과는 동일함이 확인되었다. 즉, 가치 명료 조건에서는 실제의 내집단평균이 추정된 바보다 더 극단적임을 알게되어(내집단평균이 5.02 정도일 것으로 추정했으나 실제로는 5.66으로 나타남,

5) 위장된 내집단규범(즉, 확인전 태도)을 제시한 가치 불명료 조건과는 달리 실제의 규범을 그대로 제시한 가치 명료 조건에서는 규범 확인 전후의 태도 차이점증을 위해서 상관된 자료의 차이점증방법을 사용해야 하나 가치 불명료 조건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독립표집으로 간주하고 검증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상관표집의 차이점증에서 오차가 더 적어서 t 값은 더 커지기 때문에 극화 효과가 나타났다는 결론은 차이가 없을 것이다.

표 2와 표 3 참조) 집단구성원들이 자신의 태도를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수정하였으며, 가치 불명료 조건 역시 추정치(4.44, 표 2 참조)보다 실제 평균(5.66, 표 3 참조)이 다르며 또 내집단규범을 내집단평균보다 더 극단화하여 지각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두 조건에서 모두 집단극화가 일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4개의 문항별로 태도의 극화 여부를 검증한 결과, 세계의 문항에서는 유의한 극화 효과가 발견되었으나, '산과 바다' 문항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산과 바다' 문항에서 태도가 극화되지 않은 이유는 실제의 내집단 평균이 4.16인데 비해서 피험자들에게 제시된 평균은 6.24로서 상당히 큰 차이가 나는 관계로 다소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내집단 규범을 확인 후에 최초의 실제 태도보다는 상당히 극화된 태도를 보여주었다.

종합 논의

2개의 실험을 통해서 집단상호작용 전의 구성원들의 태도는 사회적 가치가 명료한 경우에는 사회적 가치와 내집단규범간에 조화를 이루는 지점, 즉 내집단 규범보다 약간 더 바람직한 위치에서 결정되고, 반면에 사회적 가치가 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험 1에서는 지지되지 않았지만, 내집단규범에 동조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결과들은 각 조건별로 사회비교이론과 자기범주화이론의 주장의 상대적 타당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음을 의미하는데, 결국 어느 한 이론이 모든 상황에서 전적으로 더 우월한 설명력을 가진다기 보다는 두 이론이 잘 적용되거나 되지 않는 조건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적하자면, 사회적 가치가 개입되어 있지 않아서 개인의 자기 제시욕구가 발동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집단극화가 일어나기 어렵다는 사회비교이론의 주장은 타당성이 떨어지며, 사회적 가치와 관계없이 내집단 규범의 절대적 영향력을 강조한 자기범주화이론의 주장도 재고되어야 하겠다. 즉, 사회비교이론에서 상정하는 자기 제시욕구나 자기범주화이론에서 내세우는

긍정적 정체성의 욕구 등의 동기적 기제들이 개인 태도의 결정 과정과 나아가서 집단극화에 공히 영향을 주지만 상황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작용한다고 보아야 하겠다.

가치 불명료 조건에서의 두 실험의 결과는 다소 달라서 실험 1에서 세가지 관점별 태도가 다르게 나타남으로서 가설이 지지되지 않았다. 이러한 차이는 실험 1에서 문화적 가치와 문항특유 가치를 상반되도록 하여 가치 방향을 모호하게 느끼도록 했으나 다소 약하게 조작되었을 가능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다. 사실 실험 1은 두 가치의 가산성을 가정하여 문화적 가치의 영향력을 확인하는 것이 또다른 목적이었으나 확실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현재로서는 문화적 가치와 문항특유 가치간의 관계에 대하여 두가지 가능성이 공존하고 있다. 하나는 문화적 가치는 문항특유 가치에 충분히 반영되기 때문에 두 가치를 분리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문항특유 가치만을 사회적 가치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른 가능성으로는 문화적 가치와 문항특유 가치의 가산적 영향인데,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이 입장은 두 가치의 상대적 영향력에 대한 의문을 해명해야 하는 부가적 과제를 안고 있다.

두 입장을 지지하는 증거들도 혼재하고 있다. 만일 문화적 가치와 문항특유 가치가 가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면 한국의 보수적 문화적 가치를 가정할 때 모험문항에서의 극화량, 즉 모험이행량보다 보수문항에서의 극화량, 즉 보수이행량이 더 커야할 것이다. 그러나 성한기(1994, 실험 2)의 자료를 극화량을 종속측정치로 하여 분석한 결과, 모험이행량과 보수이행량의 차이가 없었다($F_{1,112}=.35$, ns.). 반면에 서구에서 실시된 연구에서는 모험이행이 압도적으로 많이 보고되며, 동양권의 연구에서는 보수이행이 더 빈번히 보고되는 사실은 두 가치의 가산성을 시사하는 증거가 된다. 이 문제는 앞으로 규명되어야 할 과제로 남는다. 어떤 형태가 되던간에 문화적 가치의 영향력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문화적 가치는 집단극화의 원인(遠因)으로 작용해서 문항특유 가치와 내집단 규범에 영향을 주고, 문항특유 가치와 내집단규범이

집단극화를 일으키는 직접적인 근인(近因)이 되는 것으로 이해해 보는 방안도 한가지 검토 모형이 되겠다.

사회적 가치와 내집단규범의 방향이 일치하는 가치 명료 조건의 극화량이 다른 조건의 극화량보다 더 커서 사회적 가치와 내집단규범의 가산적 영향이 확인된 바 있다(성한기, 1994). 본 연구에서 밝혀진 개인 태도의 결정 과정으로부터 이러한 가산적 영향의 원리를 추론해 볼 수 있다. 즉, 자기범주화이론에서는 집단구성원들이 내집단규범을 실제보다 더 극단적으로 지각하여 동조하기 때문에 집단극화된다고 가정하는데, 가치 명료 조건에서는 극화된 내집단규범보다 약간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간 위치가 개인의 최종 선택 지점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극단화하여 지각된 내집단규범에 동조하게 되는 가치 불명료 조건에 비해서 가치 명료 조건의 태도가 더 극단적일 것이고 결과적으로 극화량도 더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나은영(1995). 여론정보에 의한 태도변화: 대학생 내 집단과 일반인 집단의 사회적 지지효과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9(2), 69-83.

성한기(1987). 게임상황에서의 개인선택의 극화. 성균관대학교 수선논집, 12, 357-371.

성한기(1991). 집단극화 연구의 개관: 1961-1990.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0(1), 20-42.

성한기(1994). 집단극화에서 집단 정체성, 설득주장 및 사회비교의 영향.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이상욱(1985). 태도 유사성과 기대확정에 따른 대인매력 효과.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한덕웅(1996). 집단 행동 이론의 비판적 개관(II): 집단간 행동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10(1).

한덕웅과 성한기(1985). 선택이행에 관한 2요인설의 검증. 고려대학교 행동과학연구, 7, 173-185.

Asch, S. E.(1956). Studies of independence and con-

formity: A minority of one against a unanimous majority. *Psychological Monographs*, 70, (9, Whole No. 416).

Brown, R.(1965). *Social psychology*. New York: Free Press.

Fraser, C.(1971). Group risk-taking and group polarization.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 493-510.

Fraser, C., & Foster, D.(1984). Social groups, nonsense groups and group polarization. In H. Tajfel (Ed.), *The social dimension. Vol.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Goethals, G. R., & Zanna, M. P.(1979). The role of social comparison in choice shif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1469-1476.

Hogg, M. A., & Abrams, D.(1988). *Social identifications: A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and group processes*. London: Routledge.

Hong, L. K.(1978). Risky shift and cautious shift: Some direct evidence on the culture-value theory. *Social Psychology*, 41, 342-346.

Isenberg, D. J.(1986). Group polarization: A critical review and meta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1141-1151.

Jellison, J. M., & Arkin, R. M.(1977). Social comparison of abilities: A self-presentational approach to decision-making in groups. In J.M. Suls and R.L. Miller(Eds.), *Social comparison processes*. N.Y.: Halsted Press.

Lamm, H., & Myers, D. G.(1978). Group-induced polarization of attitude and behavior. In L. Berkowitz(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11*, Academic Press.

Levinger G., & Schneider D. J.(1969). Test of the "risk is a value" hypothesis.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11, 165-169.

Mackie, D. M.(1986). Social identification effect in

- group polarization.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50, 720-728.
- Mackie, D. M., & Cooper, J.(1984). Attitude polarization: The effects of group membershi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575-586.
- Myers, D. G.(1978). Polarizing effects of social comparis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4, 554-563.
- Myers, D. G., Wojcicki, S. A., & Aardema B.(1977). Attitude comparison: Is there ever a bandwagon effect?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7, 341-347.
- Pruitt D. G., & Cosentino C.(1975). The role of values in the choice shift.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1, 301-316.
- Stoner, J. A. F.(1968). Risky and cautious shifts in group decision: The influence of widely held value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 442-459.
- Turner, J. C., Hogg, M. A., Oakes, P. J., Reicher, S. D., & Wetherell, M.(1987). *Rediscovering the social group: A self-categorization theory*. Oxford/New York: Blackwell.
- Turner, J. C., & Oakes, P. J.(1989). Self-categorization theory and social influence. In P. B. Paulus (Ed.), *The Psychology of group influence*(2nd ed.),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Turner, J. C., Wetherell, M. S., & Hogg, M. A. (1989). A referent informational influence explanation of group polarization.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8, 135-148.
- Vinokur, A., & Burnstein, E.(1974). The effects of partially shared persuasive arguments of group-induced shifts: A group problem solving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9, 305-315.
- Wetherell, M. S.(1987). Social identity and group polarization. In J. C. Turner, M. A. Hogg, P. J. Oakes, S. D. Reicher, & M. S. Wetherell (Eds.), *Rediscovering the social group: A self-categorization theory*. Oxford/New York: Blackwell.

The Effect of Social Value and Ingroup Norm on Group Member's Attitude: A Search for Motivational Process of Group Polarization

Han Gee Seong

Department of Psychology, Catholic University of Taegu-Hyosung

Two experiments were conducted to test the controversy on the process of group member's attitude formation between two theories about group polarization. Social comparison theory suggests that group member's attitude is compromised between social value and ingroup norm, on the other hand self-categorization theory proposes that it is determined by conformity to ingroup norm. This problem was likely to be solved by comparisons among personal attitude, ideal and estimated ingroup norm, and these comparisons were expected to have different results according to the level of value clearness. Specifically, it was hypothesized that personal attitude would be more desirable than ingroup norm but less desirable than ideal in value-clean condition, and three measures would be no difference in value-unclean condition. The results of experiment 1 which measured attitude on risky-conservative dimension supported the hypothesis only in value-clean condition. But the results of experiment 2 which manipulated general social desirability supported all hypotheses of both condition and showed significant polarization effect in both condition. These results imply that social comparison theory and self-categorization theory have their own condition more suitably applicable.